

# 다시보는 만암 스님...첫 학술대회 열린다

조계종 5대 총림 하나인 백양사  
지정은 늦었어도 결정은 가장 빨라  
반농반선 청빈 사관 만암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의 근간 키워

산 스님의 사회로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가 '만암의 생애와 불교사상', 김용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만암의 수행과 백양사 강학전통', 김광식 동국대 연구초빙교수가 '만암의 선농일지 사상', 한동민 수원시박물관 학예팀장이 '만암의 교육활동',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이 '만암의 교화활동, 내가 들은 만암 스님'을 각각 발표했다.

논평자로는 해남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과 이종수 동국대 연구초빙교수, 이치란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나선다.

백양사는 이번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2012년 '만암대중사의 정화사상'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논문집과 만암대중사 평전, 백양사 사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만암 스님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11세이던 1886년 백양사 도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6세 구암사(龜巖寺) 전문강원에서 한영 스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10여년 가까이 경전 연구에 몰두하던 만암 스님은 환웅 스님에게 전강(傳講)을 받고 이후 강의와 후학 양성에 전념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스님은 백양사로 돌아와 교육사업에 매진한다. 백양사 청류암에 광성의숙(廣成義塾)을 설립하고 기존 강원제도를 혁신한다. 광성의숙에서는 약 100여 명의 학인들이 모여 선과 교, 율 등을 공부하며 다른 교육도 병행했다.

만암 스님은 1917년부터 10여 년에 걸친 중창불사에 착수하는데 특히 스님의 중창 불사는 철저하게 사찰의 자급자족으로 진행됐다. 스님은 양봉(養蜂) 또는 죽기(竹器)로 '선불장' 공동기금을 조성했다. 중창 불사 후 스님은 불교 교육사업에 나서 1928년부터 3년간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했으며 1947년에는 광주 정광중학교를 설립해 7년간 교장을 역임했다. 금호고속과 전남 방직의 모태인 전남여객 버스회사와 전남베어링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1940년대 불교정화운동에 있어 만암 스님은 조계종 교정(敎正)으로 불교 정화운동을 전개했다. 만암 스님은 비구승 중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다. 그 과정에서 비구승단 내 강경세력과 마찰로 인해 스님은 백양사로 내려왔다. 1947년 장성 백양사에서 이뤄진 고불총림 결성은 정화운동 과정



에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다. 백양사로 돌아온 만암 스님은 후학 양성에 몰두하다가 1957년 세속 나이 81세, 법랍 71세의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만암 스님 입적 58년인데 너무 소홀했다

장성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1947년 만암 스님께서 고불총림의 깃발을 내건 것은 일제 식민지 불교 체제 하에서 발생한 불교계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성격을 지닙니다. 특히 8·15 해방 이후 종단 안팎에서 정화의 바람이 불 때 만암 스님은 종단 내부에서 자주적인 불교정화를 모색하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화를 펼쳐나갔고자 했습니다.

고불총림이 등장하기 이전 해방 이후부터 이듬해인 1946년 12월까지 불교계에서는 식민지불교의 극복과 교단 정화를 둘러싸고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교단 집행부와 재야혁신단체의 다양한 의견에도 교단정화의 노선과 방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성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만암 스님은 1947년 2월 스님이 거주하던 백양사에서 고불총림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고불총림은 백양사에서 거주하는 상주대중만에 한하지 않고 전라도 일대 각 사찰대중에 한데 어우르는 총림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식민지불교 정산을 전제로

정화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내려는 만암 스님의 혜안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만암 스님은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에 정화운동을 펼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암 스님의 정신은 정화 실천에 있어 기존교단과 차별성을 지녔으며 추진에 있어 개방성, 점진적 추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특징입니다.

만암 스님은 총림의 실천방안을 제시해 식민지 불교 잔재에 대한 화합의 강구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애석한 점은 아직 만암 스님에 대한 종단 차원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스님 입적 후 58년이 흘렀지만 기록물 정리가 없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스님의 사상 조명이 나서겠습니다.

# 국가가 뭐라할 권리 없다 불교가 빌미 주지 않으면

“초국가적 성격을 지닌 사방승가의 불교는 그 시작부터 세간의 왕권과 출세간적 교권의 기능과 역할을 서로 승인하며 출발했다. 이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금욕생활로 도덕적 권위를 보여주기 가능했다.”



오는 관계였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붓다가 제시한 국가와 불교의 기능과 역할은 공동체 화합과 소통의 의식 측면에서 서로 상통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교수는 “인류사에서 종교와 정치의 잘못된 결합은 비극을 빚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헌정부 들어서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종교편향과 종교차별의 문제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왕권과 교권이 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승인하며 출발한데는 승가가 권력과 경제권을 두고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준호 교수는 “작금의 시대에는 탁발과 보시의 비영리활동과 독선에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종립대학들, 불교학 자료 공동 연구키로

각 대학 도서관 공동 이용  
공동 연구 등 학술교류 추진

불교계 종립대학들이 불교학 발전을 위해 각 대학 도서관 공동이용 및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종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는 10월 17일 종립대학 불교학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공동사업

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사업은 학술회의 개최 및 협동연구 추진, 학부 및 대학원 학점교류, 불교학 관련자료 교환열람 등이다.

협의회 회의에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배도순 위덕대 총장, 정병조 금강대 총장, 김명권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 등 종립대학 대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인문한국(HK) 연구교수 9명 선발

이자랑·박인석·김호규·이종수·김기종 박사 등 정년 보장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10월 19일 인문한국(HK) 연구 사업에 동참하는 연구교수 9명을 최종 선정했다.

동국대 인문한국 초빙심사위원회가 진행한 심사결과에 따르면 총 34명이 지원한 가운데 '인도불교 분야'에 이자랑 박사, '동아시아 분야'에 김영진, 고승학, 박인석 박사, '한국불교 분야'에 김호규, 정영식, 박광연, 이종수 박사, '한국불교 고전어문학 분야'에 김기종 박사가 각각 선

정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8월 '글로벌리더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으로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 사업에 선정돼 매년 약 5억원씩 향후 10년간 50억여 원의 지원을 받는다.

연구교수는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정년이 보장되며 최대 10명까지 선발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 “복발” 불교정신 어긋나 속히 폐기해야”

이희봉 중앙대 교수, 선리연구원 발표회서 주장

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10월 18일 서울 선학원에서 제15차 월례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월례발표회에서는 이희봉 중앙대 교수가 '중국 번역 불교의 불탑 오류 1800년', 최경아 동국대 강사가 '때비자 숫자에 나타난 종교관의 재정립'을 각각 발표했다.

이희봉 중앙대 교수는 “한자 문화권에 서만 사용하는 불탑번역용어 중 뒤얽여 놓은 공양법구트 ‘복발’ (覆鉢)은 불교 근본정신에 어긋나므로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발은 부처님 몸체를 나타내는 탑의 신성한 상징

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며 “깨어나 무한히 뻗어 나가야 할 알의 성질을 나타내는 ‘불란’ (佛卵)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탑 꼭대기 전체가 원반 바퀴 모양이 아님에도 상륜부라 칭하는 호칭 또한 더 이상해서는 안되며 대안으로 ‘상탑부’ (塔上部)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특히 ‘탑 꼭대기 바퀴인 ‘상륜’ (相輪)은 바퀴가 아니다. 부처님께 쓰여주는 ‘양산’ (陽傘)의 의미로 범문과 혼동해서는 안되며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탄허기념박물관 1주년 기념식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에서는 탄허기념박물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보살사상 만일(萬日)결사 선포식과 함께 금강경 강송대회를 개최합니다. 참선,간경,염불반으로 나누어 진행될 보살사상 실천운동은 불자로서 개인보다 사회에 이익을 주고 세상을 더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참된 보살상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 제1회 금강경 강송대회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널리 알리고 수지득승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금강경 강송대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불기2555년) 11월 26일
-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서울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 식전행사 : 금 강 경 강송대회 시상식 (오전 10시)
- 본 행 사 : 보살사상 만일결사 선포식 (오전 11시)

- 1. 응 모 자 격 : 일반부 : 사대부중 학생부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연령제한없음)
- 2. 대 회 일 정 : 1차대회(필기) - 2011.11.19.(토) 10:00 ~ 12:00 2차대회(강송) - 2011.11.19.(토) 13:00 ~ 17:00
- 3. 대 회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서울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 4. 전 행 료 : 일반 - 2만원, 학생 - 무료
- 5. 접수마감일 : 2011. 10. 31 (월) 오후 5시
- 6. 지원서 및 모집요강 : 탄허기념박물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www.tanheo.org)
- 7. 우편접수 및 문의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6-3 금강선원 02)445-8484
- 8. 결과 발표 및 시상식 : 2011. 11. 26. (토) 오전 10:00
- 9. 상 금 : 대 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특 별 상 20만원

- 주최 : 오대산 월정사, 탄허불교문화재단, BTN불교TV,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BBS불교방송,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 대한 불 교 조 계 종 금 강 선 원